2025/11/18

#### 화장품

권우정 책임연구원 20240006@iprovest.com

# 실리콘투 K뷰티 컨퍼런스 후기

실리콘투 26년에 카테고리 확장, 해외 지역 확장, 모이다 확대 등으로 모멘텀 지속 목표 인디브랜드사는 실리콘투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기획/마케팅에 역량 집중하며 윈-윈 구조 형성

## 실리콘투 2026년 목표: 카테고리 확장/ 신규 해외 법인 확장/ 모이다 확대

11/17 실리콘투는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해 실리콘투의 사업 계획, 영업 전략, 경쟁력 등을 공유함. 실리콘투는 26년 목표로 1) 카테고리 확장, 2) 신규 해외 지역 확장, 3) 모이다 확대 등을 제시함.

1) 카테고리 확장: 현재 실리콘투 카테고리별 판매 비중은 스킨케어 65%, 클렌징 13%, 선케어 8%, 마스크팩 6%, 메이크업 및 기타가 8%로 파악됨. 올해 스킨케어에 치중된 카테고리를 헤어/바디/메이 크업으로 확대 목표. 최근 들어 글로벌에서도 K스킨케어 카테고리 외에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며, 실제로 25년 3분기 누적 기준 헤어케어 성장률은 YoY 135% 견조

2) 신규 해외 지역 확장: 현재 실리콘투는 175개 판매국, 14개 해외 법인, 7천개의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음. 올해 중동, 멕시코 법인 설립에 이어 26년에도 해외 법인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 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법인을 오픈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한편, 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지분투자, M&A 등 가능성도 열어두었음.

3) 모이다 확장: 모이다는 현재 4개국에 총 6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26년에 두 자릿수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10개의 추가 모이다 점포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오프라인 접점 확대로 K뷰티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효과 기대됨.

#### 미미박스 사례로 본 실리콘투 협업 필요성

미미박스는 미국 오프라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1) 미국 내 물류비 증가, 2) 미국향 수출비 증가, 3) 리테일러 대응력 부족에 따른 공급률 하락 등 주요 리스크에 직면함. 먼저, 미국은 내륙 운송비가 한국 → 미국 해상 운임과 유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상당함. 실리콘투와 협업시 실리콘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브랜드사는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함. 수출 비용도 마찬가지임. 또한, 리테일러에 적정 재고를 공급하지 못하면 브랜드사는 패널티를 받는 구조임. 미미박스는 배송 지연 및 재고 공급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률이 YoY −18%p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함. 상대적 규모가 작은 인디 브랜드가 대형 리테일러의 까다로운 재고 관리 기준을 충족하기엔 난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임.

미미박스는 실리콘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면서 브랜드 기획/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실리콘투는 재고 운영/물류, 재고 부담, 매출채권 회수 등 전반적인 유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됨. 그 결과 25년 3분기 미미박스의 물류비는 YoY -66% 감소, 리테일 공급률도 YoY +15%p 상승함. 재고일수와 매출채권 회수일수 줄면서 여유 현금흐름이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비 확대도 가능해졌음. 실리콘투-브랜드 양측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된 사례임.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 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기준일자\_2025.09.30

| 구분 | Buy(매수) | Trading Buy(매수) | Hold(보유) | Sell(매도) |
|----|---------|-----------------|----------|----------|
| 비율 | 94.7    | 3.8             | 1.5      | 0.0      |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